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5 ~ 10/2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닫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윙화
2	흔적 없이 나는 새(전심법요)	수불	김영사	7	인제록	종광	모과나무
3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8	초기불교입문	각목	초기불전연구원
4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해 산불사기 경모 당산역	모과나무	9	불행하라 오로지 다투어	웅연	불광출판사
5	리셋 - 윤희 스님 잠언집	윤희	마음의숲	10	천강에 비친 달	정찬주	작가정신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 ‘불혹’ 맞은 불광...흔들림 없이 걸어온 길

빛으로 새긴 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불광 40년  
불광연구원 편저 | 불광출판사 펴냄 | 5만원



불광회, 월간 불광, 불광법회, 불광사 등으로 이어진 '불광'의 40년 역사를 담은 책이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불광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생생한 사진 자료 728장과 함께 불광의 40년사를 형성기, 성장기, 계승기, 중창기, '불광의 오늘'로 나누어 시대별로 정리해 엮었다.

도심포교의 효시로 불리는 '불광'의 40년의 역사는 1974년 9월 1일, 광덕 스님이 '불광회'를 창립하면서 시작됐다. 불광회는 일종의 법인적 단체로서, 이후 스님과 불광 대중들이 전개한 모든 불광운동을 이끈 모체이다.

책은 불광회가 창립되기 전인 형성기부터 조명하고 있다. 1927년 광덕 스님의 탄생에서 1973년 불광회가 출범되기 이전까지의 시기인 '형성기'는 불광운동을 시작하기 전이었지만 불광운동의 사상적 근간이 형성되어가던 시기로, 실질적인 불광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책은 첫째, '형성기'에서 광덕 스님의 생애와 불광 사상의 형성되는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이때 광덕 스님은 수행과 정진에 매진하며 다양한 불서를 간행했으며, 소천 스님을 도와 '금강경 구국독송회운'을 펼치는 등 대중전법의 경험을 쌓아갔다. 나아가 정화사 이후에는 중무행정에 투신하여 각종 대소사를 맡아 조계종의 초석을 다지는 데 헌신했다.

둘째 '초석기'에서는 1974년부터 1982년까지의 시기를 조명한다. 1974년 광덕 스님은 전법을 위한 신행 조직으로 '불광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그해 월간 <불광>을 창간하여 불광운동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월간 <불광>은 광덕 스님의 법문을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했고, 자연히 스님이 주석하는 대각사로 불자들이 몰려들었다. 스님은 1975년 43명의 불자들을 모아 마침내 '불광법회'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불광법회는 서울 종로 대각사를 중심으로 아단법석을 펼치며 '불광운동'의 중추적 조직으로 성장해갔다.

셋째, '성장기'에서는 1983년에서 1998년까지의 시기를 조명한다. 이 기간 동안 대각사에서 형성된 불광법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1983년 서울 잠실에 도심전법 도량 불광사를 창건하고 본격적인 불광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후 잠실법당은 바라밀국토 건설이라는 전법의 이념을 실천하는 근본도량이 되었다. 불광사는 어린



한국불교 전법사에 귀감으로 남은 '불광' 40년사 728장 사진과 함께 엮어

역사의 시작 '불광회' 창립한 광덕 스님 생애부터 오늘의 불광까지



이에서 청년과 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별로 법회를 개설했다. 나아가 의례를 현대화하고, 연화부를 설립하여 재가자에게 의례를 집전하게 하는 등 혁신적인 전법활동으로 교단 안팎으로 부터 주목을 받았다.

넷째, '계승기'에서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시기를 조명한다. 이 시기는 광덕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그 정신과 유지를 계승하는 시기다. 스승의 부재에 대한 슬픔을 안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여럿이 함께 걸어온 불광의 힘은 광덕 스님이 입적하신 뒤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전법의 원력은 식을 줄 몰랐고, 광덕 스님의 유지는 재자들에게 계승되었다. 광덕 스님의 부도탑과 부도비가 제막되었고, 법어집을 정리하는 추모사업도 진행되었다. 나아가 가람을 정비하고 불광교육원 부지를 확보하여 사격을 일신하고 도량을 확장했다.

다섯째, '중창기'에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기를 조명한다. 이 기간은 불광사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잠실법당을 다시 짓는 중창불사가 이뤄낸 시기이다. 이로써 불광은 지난 40년 동안 두 번에 걸쳐 법당을 세우는 저력을 보여줬다. 또 한편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사찰의 사회적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장했으며, 불광연구원을 설립하여 광덕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고 전법학 연구를 이끄는 역할을 맡았다. 불광운동의 또 하나의 초석이 된 월간 <불광>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전법포교지가 되었으며, 불광출판사 역시 수많은 양서를 출판하며 문서포교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이상과 같이 2014년 오늘 마침내 불광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불광이 걸어온 40년 역사는 현대 한국불교 전법사의 귀감으로 평가된다. 빛바랜 사진 속에 담겨 있는 할나의 순간들은 한국불교 전법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홍 스님은 "공자는 사람의 나이 마흔이 되면 유혹에 흔들림이 없고 미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혹(不惑)'이라고 했습니다. 불광도 올해 불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광이 걸어온 40년의 역사는 매일매일이 흔들림 없는 길이었습니다."며 "빛바랜 사진을 통해 감격스러웠던 순간들을 회고하는 것은 단지 40년을 정리하고 환희의 순간들을 되돌아보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발판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기 위함입니다."며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불광이 걸어온 40년의 역사는 불광만의 역사가 아니기에 이번 사진집은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광덕 스님의 정신을 오롯이 계승한 불광의 전법사는 한국불교 전법사의 텍스트가 될 것이며, 지홍 스님을 비롯한 불사를 이어 갈 불광의 사부대중에게는 점검과 다짐의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 “역사에서 밀려난 역사도 알고는 있어야”

염불처럼 서러워서  
김성동 지음 | 적은숲 펴냄 | 1만7천원



소설 <만다라>의 작가 김성동이 '시대'에 건네는 역사 에세이다. 저자는 오늘날의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역사로서 충분히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왜곡'과 '부족'으로 인해 빛이 아닌 부처의 세태를 짚어간다.

“프랑스가 나치한테 점령당했던 것이 4년간이었다. 그 4년 동안 비시친독 괴뢰정권에서 독일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친독파 7천여 명을 처단하였다. 우리는 일제하에 점령당한 것이 36년이다. 병자늑약까지 올라가면 130년이 넘는다. 그런데 해방을 맞은 지 반 세기가 넘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친일파도 단죄하지 못하였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민족반역자들을 반드시 처단하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그들의 잘못된만큼 역사에 기록해야 되지 않겠는가.”

책은 1950년 7월 대전 산내 끌령골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 대전형무소 사상범과 민간인들이 학살

것이라고 경고한다. “승자들의 역사라는 인식은 아주 현실적인 인식이며, 그들이 자기 멋대로 역사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역사에서 밀려난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자 어떻게 움직이던가 그리고 왜 쓰러지게 되었는지를 아는 역사의 진실만큼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 시대의 후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비단할아버지의 거저자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의 진실만큼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진실을 감추고 잘 가르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자는 붓을 든 것이며, 때문에 <염불처럼 서러워서>의 문장들은 서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 서러움조



포로가 된 빨치산 유격대원

‘친일’ 처단 못해도 ‘잘못’은 기록돼야  
잘못된 현실은 잘못된 역사에서 비롯  
고조선~현재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

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조국광복 투쟁에 몸 바쳤던 어른들이 광복된 조국에서 친일파들의 손에 죽어 골짜기에 묻히는 역사는 제대로 된 역사가 사회를 지배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현재도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염불처럼 서러워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진정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이 시대의 우리 사회와 앞으로의 우리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모두 진실일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기에 철수를 바라보는 작가는 이런 세이를 써야했던 것일까.

책은 우리가 '친일'이 청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세력이 대를 이어 편히 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한다.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라면 승자들이 꾸러가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현실인 것이라면 역사의 패자들, 즉 패자의 후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저자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비단할아버지'를 둔 '거저자손'이 되는

차 언급되지 않는 오늘이 또 서러운 것이다. 책은 끝나지 않은 친일의 역사와 왜구는 대륙백제의 후손들이고, '녹두가'의 녹두꽃은 전봉준이 아니라 김개남이며, '팽조'라는 말은 조선시대 혁명 승려들의 모임인 당휴(黨休)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 등 고조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과 인물, 사건을 사료와 증언을 토대로 가려져있던 역사를 들려준다. 박재완 기자

저자 김성동은

1947년 음력 11월 8일 충남 부령에서 태어났다. 8.15와 6.25사변을 거치면서 아버지와 큰삼촌, 그리고 외삼촌까지 잃었다. 조선왕조 끝 무렵 선비였던 할아버지한테서 천자문을 비롯하여 <소학>, <대학>, <맹자>까지 배우며 조선과 동양의 역사와 풍습을 배웠다. 1965년 여름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입산했으며, 1976년 가을에 하산했다. 1975년 <주간종교> 종교소설 현상공모에 단편 <목탁조>가 당선됐다. 1978년 '한국문학신인상'에 중편 <만다라>가 당선됐고, 이듬해 출간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88년 <시와 함께>에 '중생' 등 11편의 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저서로는 창작집 <피안의 새> <오막살이 집 한 채> <붉은 단추>, 장편소설 <길> <집> <만다라> <꿈> <국수(國手)>, 산문집 <미륵의 세상 꿈의 나라> <생명기행> <김성동 천자문>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 <외로워야 한다> 등이 있다.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 위드분다

www.withbuddha.co.kr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